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통악산고인돌무덤떼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대표적 유적이다.

《고인돌무덤에 대해 해설해 주었다.》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이 전시기부터 발생하여 그 이후 B.C. 3세기말까지 존재하였었다.》

《고인돌무덤은 산봉우리가 마치 통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하는 것과 같은 생김새를 갖추고있는데서 유래된 통악산을 중심으로 만경대동, 삼흥동, 원로리, 통봉리일대에 120여기 분포되어있다.》

《그 가운데서 70여기가 통악산남쪽인 만경대동과 삼흥동 일대에 있다.》

《우리는 산릉선에 매를 지어 분포된 고인돌무덤들을 보기 위해 통악산에 올랐다. 통악산의 기묘한 바위들과 절벽들, 그 수려한 산세는 보던 볼수록 심취되고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산릉선에 이르자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이 우리에게

《이곳의 무덤떼에 대해 해설해 주었다.》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이 전시기부터 발생하여 그 이후 B.C. 3세기말까지 존재하였었다.》

《고인돌무덤은 산봉우리가 마치 통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하는 것과 같은 생김새를 갖추고있는데서 유래된 통악산을 중심으로 만경대동, 삼흥동, 원로리, 통봉리일대에 120여기 분포되어있다.》

《통악산일대의 고인돌무덤떼는 우리 선조들의 고인돌무덤 쌓기술이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장숙영



통악산고인돌무덤떼 원경과 그 일부

정보기술발전면모를 보여준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공화국에서 국가인터넷망을 통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2》가 참가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1》(2차)만 놓고보아도 여러 차례의 예선경연과 준결승경연, 결승경연으로 나뉘어 100여개 단위의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연에서 주목되는것은

제출한 프로그램을 봉사에서 자동화시켜 그 결과를 즉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적결정사체계를 주축에서 자체로 개발하여 심사결과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한것이다.

《말단사용자들은 이 체계를 리용하여 문제풀이훈련을 하면서 코드작성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에 자체학습능력, 창조적사고능력, 실기능력을 높일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연문제에 대한 현상응모를 조직하여 현실에서 제

《경연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과정에 참가자들의 높은 실력을 잘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연을 통하여 과학기술로 조국을 떠받드는 1번수가 될 결의들도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림광훈



사화

백의종군 원 말이나 (3)

그림 채대성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파하는 사람은 리순신의 벗인 군관 선지이었다.》

《리순신은 북병사의 군령장을 받고 즉시 리일이 기다리는 북병영으로 갔다. 영문에 이르니 군병에 따라 처형을 당하게 되는것을 잘 아는 군사들이 모두 동정어린 눈길로 리순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전립을 쓰고 구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리순신은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이 말에서 내려 태연하게 걸어들어갔다.》

《여보게, 여해(리순신의 자)! 이제 어찌된 일인가?》 영문앞에서 기다리고있던 군관 선지이가 마주나와 그의 두손을 잡고 울먹이었다. 《병사의 군령장을 받고 왔네.》

《리순신은 무겁게 대답했다. 《병사가 지금 천둥같이 노했다. 자네를 패전지장으로 몰아 이제 군법을 시행한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는가.》 선지이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온 술을 잔대접에 칠철 넘겨 부어서 두손으로 받쳐 올랐다. 《어로부터 형장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네. 선지이는 리순신과 마지

《마리별이 될 이 자리를 그저 지나보낼수 없는 심정이었다. 《자, 술이나 자시고 들어가.》》

《리순신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했다.》

《죽고사는것은 다 정해진명이 있는 법인데 술을 마시어 무엇하겠나. 고맙네만 술을 그만 거두게.》

《그렇다구 내 어찌 자네를 그저 보내겠나. 그럼, 물이라도 마시고 들어가게.》

《선지이는 손수 물 한대접을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은 왜 마시라나.》

《리순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의 섬의를 고맙게 여겨서 불대접을 받았다.》

《물 한모금을 마시고 대접을 내미는 리순신의 두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고맙소, 선군관!》》

《조선만호 리순신은 듣거리.》

《리일은 시꺼먼 채수염을 후들후들 떨며 대청아래 무릎을 꿇고앉은 리순신을 향해 호령을 했다.》

《너는 변방보루를 지키는 장수로서 보잘것없는 녀친오랑에게도 물러서 두사람의 군사를 죽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했으며 60여명의 무고한 사람을 적에게 잡히게 하였으니 군법이 엄정할것을 알겠거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지은 죄를 모면할생각은 조금도 말고 어서 패전의 전말을 낱말로 아뢰라.》

《리순신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끝없는 분노로 온몸이 타버리는듯하였으나 터져나오는 격분을 가까스로 누르면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당 높은 표창을 주어 위로해야 할줄로 아옵니다.》

《당치 않은 변명이다.》

《병사의 발을 구르며 리순신을 노려보았다.》

《그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지은 죄가 가벼워질것만이나?》

《소관은 지은 죄가 없소이다. 보에 배속된 군사가 너무 적어서 북두도까지 방비하기가 어려워므로 소인은 여러번 계목을 올려 중원을 청하였으나 사도는 끝내 허락치 않았



《그때도 자기 체면만은 세우야 하겠기에 다음날 《리순신을 잠간 백의종군(장수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보통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처벌)하게 함이 좋을까 하오이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현대조선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설작가 리기영은 어려서부터 문학을 몹시 좋아하였으며 많은 소설을 읽으면서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다.》

《그는 잔병도 끊기 전에 란광과 공사관들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나라잃은 고통과 실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눈물겨운 고학생활도 한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교단에 서서 문학을 가르쳤다.》

《리기영은 그후 잡지 《조선지평》의 기자로 있었으며 카드의 출판부와 문학동맹을 맡아보면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험을 바쳤다.》

《1920년대에 처녀작인 《오빠의 비밀편지》를 내놓았으며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 《민촌》, 《농부 정도령》 등 당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항거의식을 보여 주는 작품들을 많이 썼었다.》

《특히 단편소설 《원보》, 《제지공장촌》, 중편소설 《귀불》, 《생명선》, 장편소설 《고향》, 《봄》을 비롯한 작품들은 그의 재치있는 필력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는 카드사건으로 두차례 공화국의 의학연구소 약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생물활성인삼수액이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질병치료효과가 뛰어나므로 하여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인삼의 특이한 약효기능은 인삼속에 들어있는 인삼사포닌들의 독특한 약리작용때문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조선의 인사체법 (조선절)

《조선의 인사체법은 사람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친절성을 표시하는 행동규범이나 표현방식, 언어행위를 동반하는 예의절절을 말한다.》

《조선의 인사체법은 무엇보다도 예의표시방식이 매우 간편하다.》

《정중하게 머리와 옷몸을 숙이는 자세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충실히 표시할수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인사로서 겸손하고 강의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조선사람의 기품과 생활관정을 잘 반영하고있다.》

《위생학적으로도 아주 좋

《부치는 싸움이었으나 군사들이 모두 힘껏 싸워 화를 막았는데 패전으로 큰피해를 당한것을 어찌 용다 하오리까.》

《리순신이 조금도 겁내지 않고 사리정연하게 항변하니 리일은 얼굴이 까맣게 질려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군법시행으로 목을 베리리던 당초의 계획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닫자 《나라에 품하여 처리할터이니 리순신을 옥에 가두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내아로 들어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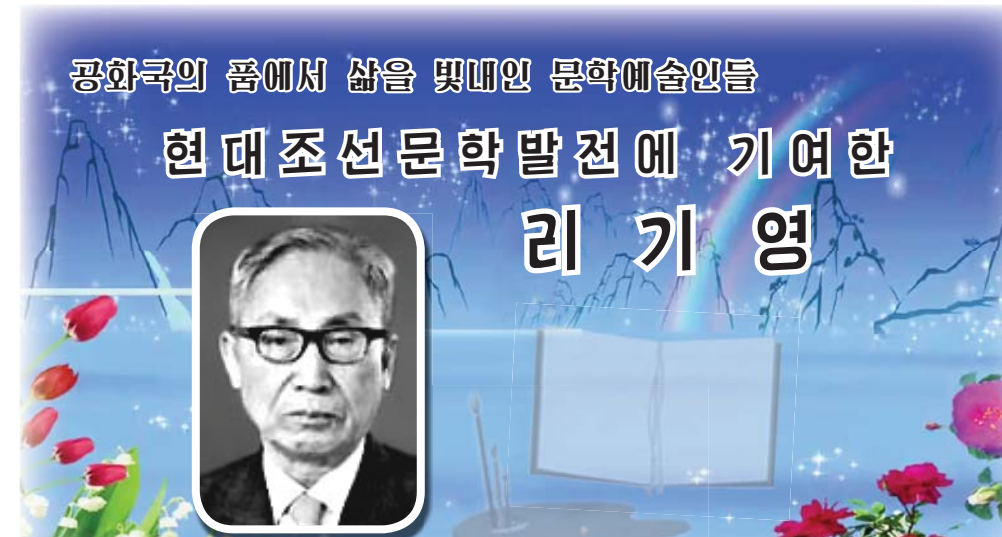
《그러나 리순신은 억울한 심정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혼연히 백의종군하여 보통군사들의 달고쓴 생활을 체험하였다.》

《그것은 후날 나라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수군통제사로서 그가 군사들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수 있게 한 유익한 계기로 되었다.》

《리순신은 그후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애국명장으로 역사에 그 빛나는 이름을 남겼지만 한때의 자그마한 공로를 코에 걸고 자고자대하던 리일은 전장에서 애적과 맞닥뜨리자마자 군사들을 버리고 남만저 비겁하게 도망쳐서 역사에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겼다.》

《평시의 총직성이 전시의 영웅성으로 나타나고 평시의 고관성이 전시의 비겁성을 낳았으니 력사와 시간은 바로 그것을 신성적으로 삼아 애국자와 반역자를 판가름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필》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현대조선문학발전에 기여한 리기영

《나 감방생활을 하였고 감옥문을 나선 다음에도 사흘이 멀다하게 일제경찰에게 끌려가 전향을 강요당했다.》

《경찰의 탄압이 더 심해지자 리기영은 가족을 데리고 금강산일에 있는 산포로 들어갔으며 밤이면 산에서 피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제에게 저항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

《해방후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크나큰 신임으로 강원도인민위원회 교육부장을 거쳐 조선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냈다.》

《이 시기에 리기영은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회열에 넘친 삶과 기쁨, 힘있는 투쟁을 정력적으로 붓에 담았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을 취급한 소설창작에 많은 힘을 넣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개벽》, 《농막신생》, 중편소설 《한 녀성의 운명》, 장편소설 《망》, 《두만강》(1부-3부)을 들수 있다.》

《조선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그는 김일성상계관인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면역강화효과가 뛰어난 생물활성인삼수액

《\* \* \*》

《지금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면서 인삼사포닌들의 약리활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사람의 위장관내에는 인삼사포닌소화효수에 리용되는 장내정상세균이 매우 적게 들어있다.》

《때문에 인삼을 그냥 먹는 경우 위장관내에서 인삼사포닌의 소화효율은 5%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곳 연구자들은 미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몸안에서의 인삼사포닌의 소화효율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는 면역강화효과가 뛰어난 생물활성인삼수액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생물활성인삼수액은 화학치

《\* \* \*》

《로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은 물론 수술이나 질병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면역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주사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질병들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를



면역강화효과가 뛰어난 생물활성인삼수액

《\* \* \*》

《비롯한 여러 보건단위에서 수년간에 걸쳐 임상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 수액은 인삼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른 약물에 비해 배에 암세포종식억제작용과 면역증강작용을 현저히 강화시켜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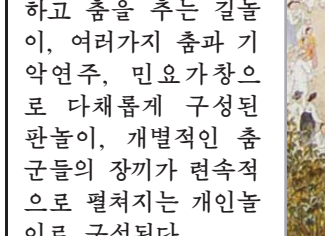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농악무

《생한 장단과 흥겨운 선율을 연주하고 다채로운 춤구도들이 그리거나 열두발상모와 같이 특색있는 형상수단들이 동반되는 고유한 민속예술형식을 갖추고있다.》

《장구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시대가 변하고 산천도 변하였지만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는 언제나 농악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변함없이 있었다.》

《농악무의 춤구성 방식은 여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농악대가 행렬을 지어 걸어가면서 농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길놀이, 여기까지 춤과 기악연주, 민요가창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판놀이, 개별적인 춤꾼들의 장기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개인놀이로 구성된다.》



농악무의 춤구성

《잠자기 전에 쌓였던 정신육체적피로를 풀고 자는 습관을 붙이는것은 건강에 아주 리롭다.》

《간단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

《피로를 풀기 위해 적당한 폼피기를 하면 좋다.》

《이타기를 한다.》

《입안위생에 좋고 잠도 잘 오게 한다.》

《물마시기를 한다.》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볼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마시기를 삼가하는것은 좋은 버릇이 아니다.》

《머리빗기를 한다.》

《피순환이 잘되게 하며 깊은 잠에 들수 있게 한다.》

《발씻기를 한다.》

《더운물에 발을 씻으면 칠패들이 자극되어 피로가 빨리 풀리고 인차 잠들수 있다고 한다.》

《발안마를 한다.》

《발병을 예방하며 변비, 허리아픔을 낫게 한다.》

《편안히 앉아서 머리를 뒤로 힘껏 체고 30초동안 눈을 감는다.》

《이렇게 3번 하면 머리가 거뜨해진다.》

《다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두발바닥을 맞붙이고 두손으로 무릎을 내리누른다.》

《본사기자 리철민》